

대형계열기획보도—백성이야기 (166)

“더 많은 환자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 룡정시중의병원 조의과 주임 김준걸을 만나보다



김준걸의사는 모든 환자를 가족처럼 살뜰하게 대하면서 진찰은 물론 환자들의 고민거리와 가정사까지 귀를 기울여준다.

“환자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낍니다. 더 많은 환자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중의학 전통치료법과 현대의학을 결합한 전문적인 의술과 환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태도로 현지 환자들로부터 ‘가족같은 의사’로 불리며 큰 신뢰를 얻고 있는 이가 있으니 바로 룡정시중의병원 조의과 주임 김준걸(41세) 의사이다.

최근, 기자는 김준걸의사의 치료를 받고 효험을 본 환자로부터 제보를 받고 드높은 책임감으로 환자를 가족처럼 대하는 김준걸의사를 찾아갔다.

◆ 환자 증가로 인해 큰 진료실로 옮길 수밖에

“김준걸은 의술이 훌륭할 뿐만 아니라 모든 환자들을 본인의 가족이나 친척, 친구처럼 친절하게 대하고 책임지고 진료해주어 환자들 사이에서 평판이 매우 높습니다.”

“심장과 혈액순환 문제로 보름 이상 입원했는데 김준걸이 중서의 결합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치료해주었소.”

“매일 많은 환자들을 상대하면서도 어느 환자든 다양한 의문점을 물으면 김준걸은 하나하나 세심하게 설명해주었소.”

“언제 가도 짜증내는 법 없이 환자의 어려움을 항상 먼저 고려하고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가 너무 편하고 병이 낫는 데도 큰 힘이 되었소.”

이는 김준걸의사의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진솔한 제부지언이다.

담소를 나누는 과정에 기자는 룡정 시내뿐 아니라 화룡시, 도문시, 개산툰진 등 지역에서도 환자들이 많이 김준걸의사를 찾아온다는 것

을 알게 되었다. 진심어린 봉사과 입소문을 통해 김준걸의사를 찾아 오는 환자들이 급증하다 보니 그의 진료실도 원래의 4층 진료실에서 보다 넓은 5층 진료실로 옮겨졌다고 한다.

한 환자는 “가벼운 기침으로 김주임을 찾았는데 단순히 진맥만으로 초기 폐염을 진단해냈다.”며 그의 높은 전문성을 인정했다.

◆ 환자들의 세부사항까지 꼼꼼히 기억해

다른 한 환자는 “몇년째 아플 때마다 김주임을 찾아 진료받고 있는데 그는 매일 수십명의 환자들을 만나지만 매환자들의 상황을 잘 기억하고 있다.”며 놀라움을 전했다. 또한 김준걸의사는 모든 환자를 가족처럼 살뜰하게 대하면서 진찰은 물론 환자들의 고민거리와 가정사까지 무뎀 환자들의 말이라면 모두 인내심 있게 귀를 기울여준다고 했다.

김준걸의사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정서적으로 의사에게 기대가 되기에 저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편입니다. 저를 믿고 속심을 털어놓는데 제가 외면하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정서적인 안정과 의사에 대한 신뢰는 건강 회복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의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지요.”라고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또 한 환자는 “김준걸의사는 진료후 약을 처방할 때면 약통에 적힌 복용 설명이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나이 많은 환자들에게 특별히 따로 큼직하게 써주며 약 복용 방법을 꼼꼼히 설명한 후에야 집으로 보낸다.”고 했다.



김준걸의사에게 감사기를 전하며 고마움을 표하는 환자들

로 진심을 담아 환자를 위한 믿음직한 ‘건강지킴이’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소박하지만 확고한 의지와 환자에 대한 진심어린 태도는 진정한 ‘의사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 고향에 자리잡은 17년 차 의료인

김준걸의사는 장춘중의대학 중서 의결합학과를 졸업하고 고향 룡정에 돌아와 올해까지 17년째 의료직에 종사하고 있다. 보다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평일에는 오전부터 오후 2시까지 연장 근무를 하는데 현재 일 평균 40~50명의 문진환자와 30~40명의 입원환자 진료를 책임지고 있다. 환자들의 화험 결과를 당일 다 확인하고 처방전을 떼다 보면 오후 1시나 2시가 되어서야 점심밥을 먹는 일도 다반수라고 한다.

김준걸의사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싶은 마음에 의사라는 길을 택했어요. 십여년간 의사직에 종사하면서 나를 믿고 찾아오는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서 기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환자들이 감사기를 들고 와서 건강을 회복했다는 희소식을 전할 때면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 또한 의사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동력으로 됩니다.”라고 밝혔다.

이런 김준걸의사를 보고 동료 의사들은 “자상하고 세심하며 열정이 넘치고 책임감이 드높은 의사”라고 평가하면서 “1년에 감사기만 네댓개, 감사편지도 무수히 날아온다.”고 소개했다.

◆ 진심으로 환자를 위한 믿음직한 건강지킴이

김준걸의사에 대한 인상을 말할라 치면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진심으로 환자를 대하고 위한다는 것이다. 진료중에는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화장실에 가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환자를 한명이라도 더 많이 돌보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김준걸의사

려는 모습에 환자들은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번은 개산툰진에 살고 있는 류로인이 입소문을 듣고 김준걸의사를 찾았는데 한눈에 그 환자가 심한 빈혈임을 진단했고 신체검사를 거쳐 위궤양, 상부 소화기관 출혈, 출혈성 빈혈(중증)이라는 구체적인 진단이 나왔다.

김준걸의사는 환자를 삼급 병원으로 이송하여 수혈하고 증세에 따라 치료할 것을 건의했지만 환자와 가족들은 김준걸의사한테서 치료받겠다고 고집했다. 이에 김준걸의사는 치료방안을 작성하고 매일 3~5차례의 회진을 진행하며 드높은 책임감으로 치료에 만전을 기했다. 큰 20일간의 정맥주사와 중앙 치료를 거쳐 환자는 혈변이 없어지고 병세가 호전됐다. 류로인의 가족들은 김준걸의사에서 감사기를 전하며 고마움을 표했고 류로인도 지인들을 만나면 김준걸의사의 의덕과 의술 자량에 여념이 없다.

김준걸의사는 오랜 기간 동안 일터에서 쌓은 전문성과 세심함, 인내심으로

의술에 대한 깊은 연장과 드높은 사업열정으로 김준걸의사는 2017년에 제1진으로 길림성 청년우수중의 립 상인재양성반을 수료했다. 또 ‘연변 청년일터기준범’ 칭호를 수여받은 데 이어 연변 2023년 중국지사활동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의사’ 영예칭호를 수여받고 주급 의료선진일군에 선정되기도 했다.

최근, “아버지와 같은 의사가 되고 싶다.”는 아이들의 말에 더욱 뿌듯해진다 김준걸의사, “앞으로도 중의 전통치료법을 립상에 적극 결부시켜 환자들을 더 잘 치료하고 제자 양성에도 힘써 보다 많은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오늘도 김준걸의사는 평범한 의사일터에서 공산당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안고 환자를 위한 진심어린 의료봉사를 실천해가고 있다.

/리전기자



북산가두 백가연

20여년간 이어온 따뜻한 이웃정



참가자들이 민족단결의 꽃을 피우며 물만두를 빚고 있다.

1일, 제 20회 민족단결 이웃문화 계열 행사의 일환인 ‘혀끝의 북산(舌尖上的北山) 백가연 행사’가 연길시 북산가두 단산광장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구수한 음식 향기 속에 연길시당위 통전부, 시민족종교국, 시장위 사회사업부 등 여러 부서 책임자와 여러 민족 주민, 부대 장병, 기관 간부, 음식업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음식으로 소통하고 이웃간의 정을 나누며 민족단결의 따스한 정을 함께 나누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20회째 이어온 백가연 행사는 이웃간의 정과 깊은 융합을 보여준과 아울러 다민족 문화교류와 단결본진의 생생한 실천의 장으로 이미 연길시를 대표하는 대중문화활동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행사는 짙은 문화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다. 시문학예술연합회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서 붓글씨를 써서 주민들에게 선물했고 ‘즐거움 백성대무대’에서는 여러 사회구역에서 열성껏 준비한 <나는 선서한다>, <웅해야> 등 다양한 문예종목이 공연되며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다. 노래 <붉은 해 변경 비추네>는 배우와 관객들이 함께 어우러져 함성과 박수를 이끌어냈다.

이어진 ‘100미터 김밥 만들기’ 행사에서는 연길시 북산가두 12개 사회구역 대표와 부대 장병, 기관 간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긴 룡 김밥’을 만들어 민족단결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렇게 완성된 김밥은 나눔의 시간을 통해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했다.

행사장 한편에는 또 조선족 떡치기, 김치 담그기, 순대 만들기 등 다양한 미식 체험 부스가 마련되어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으며 식탁에는 삼계탕, 된장찌개, 잡쌀완자, 동심오색라피 등 여러 민족의 특색 요리들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져있어 군침이 들게 했다.

이번 행사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백가연에서는 주민들이 각자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정을 쌓았다. “매년 이웃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재미 있는 공연도 보게 되어 명절 때보다 더 즐겁네요.” 한 주민의 진심어린 소감처럼 식탁에서 웃음과 대화, 웃음소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 가깝게 이어주었다.

북산가두의 백가연은 단순한 음식 나눔을 넘어 20년간 이어져온 신뢰와 공동체적의 상징으로 앞으로도 민족단결과 따뜻한 이웃정을 있는 배우와 관객들이 함께 어우러져 함성과 박수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100미터 김밥 만들기’ 행사에서는 연길시 북산가두 12개 사회구역 대표와 부대 장병, 기관 간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긴 룡 김밥’을 만들어 민족단결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렇게 완성된 김밥은 나눔의 시간을 통해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했다.

행사장 한편에는 또 조선족 떡치기, 김치 담그기, 순대 만들기 등 다양한 미식 체험 부스가 마련되어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으며 식탁에는 삼계탕, 된장찌개, 잡쌀완자, 동심오색라피 등 여러 민족의 특색 요리들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져있어 군침이 들게 했다.

이번 행사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백가연에서는 주민들이 각자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정을 쌓았다. “매년 이웃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재미 있는 공연도 보게 되어 명절 때보다 더 즐겁네요.” 한 주민의 진심어린 소감처럼 식탁에서 웃음과 대화, 웃음소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 가깝게 이어주었다.

북산가두의 백가연은 단순한 음식 나눔을 넘어 20년간 이어져온 신뢰와 공동체적의 상징으로 앞으로도 민족단결과 따뜻한 이웃정을 있는 배우와 관객들이 함께 어우러져 함성과 박수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100미터 김밥 만들기’ 행사에서는 연길시 북산가두 12개 사회구역 대표와 부대 장병, 기관 간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긴 룡 김밥’을 만들어 민족단결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렇게 완성된 김밥은 나눔의 시간을 통해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했다.

행사장 한편에는 또 조선족 떡치기, 김치 담그기, 순대 만들기 등 다양한 미식 체험 부스가 마련되어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으며 식탁에는 삼계탕, 된장찌개, 잡쌀완자, 동심오색라피 등 여러 민족의 특색 요리들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져있어 군침이 들게 했다.

이번 행사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백가연에서는 주민들이 각자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정을 쌓았다. “매년 이웃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재미 있는 공연도 보게 되어 명절 때보다 더 즐겁네요.” 한 주민의 진심어린 소감처럼 식탁에서 웃음과 대화, 웃음소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 가깝게 이어주었다.

북산가두의 백가연은 단순한 음식 나눔을 넘어 20년간 이어져온 신뢰와 공동체적의 상징으로 앞으로도 민족단결과 따뜻한 이웃정을 있는 배우와 관객들이 함께 어우러져 함성과 박수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100미터 김밥 만들기’ 행사에서는 연길시 북산가두 12개 사회구역 대표와 부대 장병, 기관 간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긴 룡 김밥’을 만들어 민족단결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렇게 완성된 김밥은 나눔의 시간을 통해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했다.

행사장 한편에는 또 조선족 떡치기, 김치 담그기, 순대 만들기 등 다양한 미식 체험 부스가 마련되어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으며 식탁에는 삼계탕, 된장찌개, 잡쌀완자, 동심오색라피 등 여러 민족의 특색 요리들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져있어 군침이 들게 했다.

이번 행사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백가연에서는 주민들이 각자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정을 쌓았다. “매년 이웃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재미 있는 공연도 보게 되어 명절 때보다 더 즐겁네요.” 한 주민의 진심어린 소감처럼 식탁에서 웃음과 대화, 웃음소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 가깝게 이어주었다.

북산가두의 백가연은 단순한 음식 나눔을 넘어 20년간 이어져온 신뢰와 공동체적의 상징으로 앞으로도 민족단결과 따뜻한 이웃정을 있는 배우와 관객들이 함께 어우러져 함성과 박수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100미터 김밥 만들기’ 행사에서는 연길시 북산가두 12개 사회구역 대표와 부대 장병, 기관 간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긴 룡 김밥’을 만들어 민족단결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렇게 완성된 김밥은 나눔의 시간을 통해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했다.

행사장 한편에는 또 조선족 떡치기, 김치 담그기, 순대 만들기 등 다양한 미식 체험 부스가 마련되어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으며 식탁에는 삼계탕, 된장찌개, 잡쌀완자, 동심오색라피 등 여러 민족의 특색 요리들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져있어 군침이 들게 했다.

이번 행사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백가연에서는 주민들이 각자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정을 쌓았다. “매년 이웃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재미 있는 공연도 보게 되어 명절 때보다 더 즐겁네요.” 한 주민의 진심어린 소감처럼 식탁에서 웃음과 대화, 웃음소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 가깝게 이어주었다.

북산가두의 백가연은 단순한 음식 나눔을 넘어 20년간 이어져온 신뢰와 공동체적의 상징으로 앞으로도 민족단결과 따뜻한 이웃정을 있는 배우와 관객들이 함께 어우러져 함성과 박수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100미터 김밥 만들기’ 행사에서는 연길시 북산가두 12개 사회구역 대표와 부대 장병, 기관 간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긴 룡 김밥’을 만들어 민족단결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렇게 완성된 김밥은 나눔의 시간을 통해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했다.

회구역 대표와 부대 장병, 기관 간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긴 룡 김밥’을 만들어 민족단결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렇게 완성된 김밥은 나눔의 시간을 통해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했다.

행사장 한편에는 또 조선족 떡치기, 김치 담그기, 순대 만들기 등 다양한 미식 체험 부스가 마련되어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으며 식탁에는 삼계탕, 된장찌개, 잡쌀완자, 동심오색라피 등 여러 민족의 특색 요리들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져있어 군침이 들게 했다.

이번 행사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백가연에서는 주민들이 각자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정을 쌓았다.

“매년 이웃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재미 있는 공연도 보게 되어 명절 때보다 더 즐겁네요.” 한 주민의 진심어린 소감처럼 식탁에서 웃음과 대화, 웃음소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 가깝게 이어주었다.

북산가두의 백가연은 단순한 음식 나눔을 넘어 20년간 이어져온 신뢰와 공동체적의 상징으로 앞으로도 민족단결과 따뜻한 이웃정을 있는 배우와 관객들이 함께 어우러져 함성과 박수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100미터 김밥 만들기’ 행사에서는 연길시 북산가두 12개 사회구역 대표와 부대 장병, 기관 간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긴 룡 김밥’을 만들어 민족단결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렇게 완성된 김밥은 나눔의 시간을 통해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했다.

행사장 한편에는 또 조선족 떡치기, 김치 담그기, 순대 만들기 등 다양한 미식 체험 부스가 마련되어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으며 식탁에는 삼계탕, 된장찌개, 잡쌀완자, 동심오색라피 등 여러 민족의 특색 요리들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져있어 군침이 들게 했다.

이번 행사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백가연에서는 주민들이 각자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정을 쌓았다. “매년 이웃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재미 있는 공연도 보게 되어 명절 때보다 더 즐겁네요.” 한 주민의 진심어린 소감처럼 식탁에서 웃음과 대화, 웃음소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 가깝게 이어주었다.

북산가두의 백가연은 단순한 음식 나눔을 넘어 20년간 이어져온 신뢰와 공동체적의 상징으로 앞으로도 민족단결과 따뜻한 이웃정을 있는 배우와 관객들이 함께 어우러져 함성과 박수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100미터 김밥 만들기’ 행사에서는 연길시 북산가두 12개 사회구역 대표와 부대 장병, 기관 간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긴 룡 김밥’을 만들어 민족단결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렇게 완성된 김밥은 나눔의 시간을 통해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했다.

행사장 한편에는 또 조선족 떡치기, 김치 담그기, 순대 만들기 등 다양한 미식 체험 부스가 마련되어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으며 식탁에는 삼계탕, 된장찌개, 잡쌀완자, 동심오색라피 등 여러 민족의 특색 요리들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져있어 군침이 들게 했다.

이번 행사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백가연에서는 주민들이 각자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정을 쌓았다. “매년 이웃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재미 있는 공연도 보게 되어 명절 때보다 더 즐겁네요.” 한 주민의 진심어린 소감처럼 식탁에서 웃음과 대화, 웃음소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 가깝게 이어주었다.

북산가두의 백가연은 단순한 음식 나눔을 넘어 20년간 이어져온 신뢰와 공동체적의 상징으로 앞으로도 민족단결과 따뜻한 이웃정을 있는 배우와 관객들이 함께 어우러져 함성과 박수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100미터 김밥 만들기’ 행사에서는 연길시 북산가두 12개 사회구역 대표와 부대 장병, 기관 간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긴 룡 김밥’을 만들어 민족단결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렇게 완성된 김밥은 나눔의 시간을 통해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했다.

행사장 한편에는 또 조선족 떡치기, 김치 담그기, 순대 만들기 등 다양한 미식 체험 부스가 마련되어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으며 식탁에는 삼계탕, 된장찌개, 잡쌀완자, 동심오색라피 등 여러 민족의 특색 요리들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져있어 군침이 들게 했다.

이번 행사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백가연에서는 주민들이 각자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정을 쌓았다. “매년 이웃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재미 있는 공연도 보게 되어 명절 때보다 더 즐겁네요.” 한 주민의 진심어린 소감처럼 식탁에서 웃음과 대화, 웃음소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 가깝게 이어주었다.

북산가두의 백가연은 단순한 음식 나눔을 넘어 20년간 이어져온 신뢰와 공동체적의 상징으로 앞으로도 민족단결과 따뜻한 이웃정을 있는 배우와 관객들이 함께 어우러져 함성과 박수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100미터 김밥 만들기’ 행사에서는 연길시 북산가두 12개 사회구역 대표와 부대 장병, 기관 간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긴 룡 김밥’을 만들어 민족단결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렇게 완성된 김밥은 나눔의 시간을 통해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했다.

행사장 한편에는 또 조선족 떡치기, 김치 담그기, 순대 만들기 등 다양한 미식 체험 부스가 마련되어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으며 식탁에는 삼계탕, 된장찌개, 잡쌀완자, 동심오색라피 등 여러 민족의 특색 요리들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져있어 군침이 들게 했다.

이번 행사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백가연에서는 주민들이 각자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정을 쌓았다. “매년 이웃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재미 있는 공연도 보게 되어 명절 때보다 더 즐겁네요.” 한 주민의 진심어린 소감처럼 식탁에서 웃음과 대화, 웃음소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 가깝게 이어주었다.

북산가두의 백가연은 단순한 음식 나눔을 넘어 20년간 이어져온 신뢰와 공동체적의 상징으로 앞으로도 민족단결과 따뜻한 이웃정을 있는 배우와 관객들이 함께 어우러져 함성과 박수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100미터 김밥 만들기’ 행사에서는 연길시 북산가두 12개 사회구역 대표와 부대 장병, 기관 간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긴 룡 김밥’을 만들어 민족단결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렇게 완성된 김밥은 나눔의 시간을 통해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했다.

행사장 한편에는 또 조선족 떡치기, 김치 담그기, 순대 만들기 등 다양한 미식 체험 부스가 마련되어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으며 식탁에는 삼계탕, 된장찌개, 잡쌀완자, 동심오색라피 등 여러 민족의 특색 요리들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져있어 군침이 들게 했다.

이번 행사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백가연에서는 주민들이 각자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정을 쌓았다. “매년 이웃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재미 있는 공연도 보게 되어 명절 때보다 더 즐겁네요.” 한 주민의 진심어린 소감처럼 식탁에서 웃음과 대화, 웃음소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 가깝게 이어주었다.

북산가두의 백가연은 단순한 음식 나눔을 넘어 20년간 이어져온 신뢰와 공동체적의 상징으로 앞으로도 민족단결과 따뜻한 이웃정을 있는 배우와 관객들이 함께 어우러져 함성과 박수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100미터 김밥 만들기’ 행사에서는 연길시 북산가두 12개 사회구역 대표와 부대 장병, 기관 간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긴 룡 김밥’을 만들어 민족단결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렇게 완성된 김밥은 나눔의 시간을 통해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했다.

행사장 한편에는 또 조선족 떡치기, 김치 담그기, 순대 만들기 등 다양한 미식 체험 부스가 마련되어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으며 식탁에는 삼계탕, 된장찌개, 잡쌀완자, 동심오색라피 등 여러 민족의 특색 요리들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져있어 군침이 들게 했다.

이번 행사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백가연에서는 주민들이 각자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정을 쌓았다. “매년 이웃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재미 있는 공연도 보게 되어 명절 때보다 더 즐겁네요.” 한 주민의 진심어린 소감처럼 식탁에서 웃음과 대화, 웃음소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 가깝게 이어주었다.

성·주급 병원 의료 협력 강화에 살손



현장 지도를 하고 있는 길림대학제2병원 위장내과 전문가

— 길림대학제2병원 전문가팀 연변조의를병원서 진료봉사활동 전개

8월 30일, 길림대학제2병원 전문가팀이 연변조의를병원을 방문해 대규모 진료봉사를 진행했다.

“자주 창립 기념일을 맞아 건강을 선물한다”를 주제로 한 이번 활동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봉사 수준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

진료팀은 갑상선외과, 위장내과, 내분비과, 골과, 위장외과, 부인과, 관절외과, 심혈관내과 등 부서의 8명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는데 그들은 환자들의 병세와 증상을 자세히 문 의하고 개별 맞춤형 치료 방안을 제

시하는 등 전문적이고 세심한 진료 봉사를 제공해 환자들의 일치한 효 평을 받았다.

한편 활동은 단순 진료를 넘어 기술지도와 학술교류도 이루어졌다. 길림대학제2병원 전문가팀은 주제 별 강좌, 병실 회진 및 지도, 질병 사례 검토 등을 통해 연변조의를병원 의료진과 깊은 협력과 지식 공유를 진행했다.

연변조의를병원 관련 책임자는 “이번 활동은 성급 병원과 주급 병원의 협력에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 앞으로도 고품질 의료봉사를 제공하고 ‘건강 연변’ 건설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협력 모델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리전기자



대형계열기획보도 **백성이야기**